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4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자료

- 일 시 : 2024. 4. 9.(화)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김왕직(위원장), 구미래, 남해경, 이은주,  
이은하, 천진기, 최원석, 최종희, 홍석주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심 의 사 항】

|   |                                     |      |
|---|-------------------------------------|------|
| 1 | 수원 광주이씨 고택 주변 복선전철(인덕원-동탄) 노반 신설 공사 | (공개) |
| 2 | 안동 하회마을 내 농로 포장 및 석축 정비             | (공개) |
| 3 | 성주 한개마을 내 급수시설 정비                   | (공개) |
| 4 | 성주 한개마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부지조성         | (공개) |
| 5 | 아산 외암마을 내 가설건축물 설치                  | (공개) |
| 6 |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배수로 정비                  | (공개) |
| 7 | 청주 고은리 고택 내 피해목 벌목                  | (공개) |
| 8 |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허가사항 변경    | (공개) |

【검토사항】

|   |                 |      |
|---|-----------------|------|
| 9 | 하동 쌍계사 장승 지정 검토 | (공개) |
|---|-----------------|------|

【보고사항】

|    |                   |      |
|----|-------------------|------|
| 10 | 현상변경 등 자체처리 결과 보고 | (공개) |
|----|-------------------|------|

# 심 의 사 항

## 1. 수원 광주이씨 고택 주변 복선전철(인덕원~동탄) 노반 신설 공사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수원 광주이씨 고택」 주변 복선전철 노반 신설 공사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수원 광주이씨 고택」 주변 복선전철 노반 신설공사가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6구역(이격거리 164m)에 해당함.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수원 광주이씨 고택」
  - 소 재 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6-9
- (3) 신청위치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장안구 송죽동 일원
- (4) 신청내용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 신설 기타공사
  - 총연장 L=1,947.6m (※역보지역 내: 960m)
  - 본선터널 L=1,835.6m, 본선환기구 1개소
  - 공사구간 심도: 39m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상시 계측계획서와 지하수위 관련 자료를 제출 후 시행

## 2. 안동 하회마을 내 농로 포장 및 석축 정비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내 농로 포장 및 석축 정비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내 농로 포장 및 석축 정비가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에 위치함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산48, 551-1
- (4) 신청내용 : 농로 포장 및 석축 정비
  - 농로 포장 : 비포장 → 콘크리트 포장(L=75.0m, W=2.5m, T=20cm)
  - 석축 정비 : 석축 → 식생옹벽 블록설치(L=18.0m, H=1.32m)
    - ※ 식생옹벽 블록규격(1,000×500×330mm)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24. 4. 1.)

- 하회마을 내 농로 포장을 연장하는 것과 지난해 비 피해를 입어 훼손된 석축을 보수하는 것으로서 해당 문화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석축 보수는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농로 포장은 원안대로 시행하되, 석축 정비는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석 석축으로 조정하여 시행

### 3. 성주 한개마을 내 급수시설 정비

####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성주 한개마을」 내 급수시설 정비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성주 한개마을」 내 급수시설 정비가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성주 한개마을」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내에 위치함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성주 한개마을」
  - 소 재 지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56 외 5필지
- (4) 신청내용 : 급수시설 정비
  - 상수관로(D40~50) 설치 L=712m
  - 가압장(3.0×3.0×H=2.3m) 1개소 설치
  - 소화전 2개소 설치
  - 계량기 이전 설치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24. 3. 19.)

- 한개마을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인 감응사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관로 매설과 가압장 및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임
- 설치장소가 문화재지정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쳐있기는 하나 시설물의 규모 및 설치방법 등을 감안할 때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가압장 디자인을 주변 경관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

#### 4. 성주 한개마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부지조성

#####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성주 한개마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부지조성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성주 한개마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부지조성이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126m)에 해당함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성주 한개마을」
  - 소 재 지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산63-4, 146
- (4) 신청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3개동)
  - 부지면적 : 1,462.0㎡
  - 건축면적/연면적 : 296.0㎡ / 296.0㎡
  - 층수/최고높이 : 지상 1층 / 6.70m
  - 구 조 : 경량철골조
  - 보강토옹벽(H=0.5~4.8m, L=224m) 및 석축(H=0.5~2.5m, L=47m) 설치
  - 부지 절·성토 있음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24. 1. 22.)**

- 사업대상지가 해당 문화유산인 한개마을 중심에서 약 450m 이격된 산 너머에 위치하므로 직접적인 시각적 간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한개마을을 감싸고 있는 좌청룡의 끝자락(보호구역)과 인접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사업대상지(임야)를 대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절·성토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옹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지형상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 예상되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 5. 아산 외암마을 주변 가설건축물 설치

###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외암마을」 주변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외암마을」 주변 가설건축물 설치가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30m)에 해당함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외암마을」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36
- (4) 신청내용 : 가설건축물 설치(2개동)
  - 대지면적 : 3,610㎡
  - 비닐하우스 1동 설치(12m×6m×H=3m이하)
  - 컨테이너(농막) 1동 설치(6m×3m×H=2.5~3.0m)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24. 3. 29.)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내에 위치한 농경지에 임시가설물(농막)과 비닐하우스 각 1동씩을 설치하는 것으로 마을 중심에서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고 농사용 시설임을 감안할 때 마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농막은 3년 후 설치 여부를 재검토토록 하고 시행

## 6.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배수로 정비

###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배수로 정비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배수로 정비가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2구역(이격거리 90~180m)에 해당함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송 송소 고택」
  - 소 재 지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15-12
- (3) 신청위치 :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738, 211-2
- (4) 신청내용 : 배수로 정비
  - 배수로 복개(1200×800, L=44m), 디자인 스틸그레이팅 설치
  - 수로관(300×300, L=30m), U형 스틸그레이팅 설치
  - 콘크리트 포장 철거 후 재포장 A=26.4m<sup>2</sup>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 7. 청주 고은리 고택 내 재해우려목 제거

###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주 고은리 고택」 내 재해우려목 제거를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주 고은리 고택」 내 재해우려목 제거가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주 고은리 고택」 지정구역 내에 위치함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주 고은리 고택」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
- (3)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
- (4) 신청내용 : 재해우려목 1주 제거
  - 감나무 1주(B=60cm, H=15m)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24. 3. 29.)

- 안채 배면 담장 안쪽에 위치한 수목의 가지가 인접 가옥으로 길게 뻗어 있어 낙과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는 하나 별목이 아닌 가지치기 정도로도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재해 우려목에 대해 별목이 아닌 가지치기로 조정하여 시행

## 8.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허가사항 변경

###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행위허가 변경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허가사항 변경이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보도연맹사건추정지(이격거리 480m)에 해당함
  - ※ ‘22년 제5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2.6.14.) : 조건부가결
  - 부지조성공사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주 고은리 고택」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190-1
- (3)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산74-4
- (4)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조성 허가사항 변경
  - 대지면적 : 2,514㎡
  - 소매점 1동 신축

| 구분   | 기허가                                                                                                                   | 금회                                                                                                                                      |
|------|-----------------------------------------------------------------------------------------------------------------------|-----------------------------------------------------------------------------------------------------------------------------------------|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 100㎡</li> <li>· 구조 : 경량철골구조</li> <li>· 층수/높이 : 지상1층 / 6.5m</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변동 없음</li> <li>· 남측으로 8.5m 위치이동</li> </ul>                                                 |
| 부지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성토 : +1.63 ~ 8.39m</li> <li>· 보강토 옹벽 설치 : H = 4.9m, L = 36m</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성토 : +1.63 ~ 10.9m</li> <li>· 보강토 옹벽 설치 : H = 7.39 ~ 10m (5m 이내 × 2단), L = 27.87m</li> </ul> |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24. 3. 29.)**

- 기 허가된 주택 부지 성토면 및 경사면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 비해 노출된 보강토 옹벽쌓기 높이가 증가(4.9m→10m)되고 자연스러운 경사면이 사라지게 되어 경관 훼손 및 시각적 간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현재 변경(안)대로 시공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 검 토 사 항

## 9. 하동 쌍계사 장승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하동 쌍계사 장승」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하동 쌍계사 장승」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道 문화재위원회 심의(2023. 10. 27.): 원안가결
  -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신청(2023. 11. 14.)
  - 관계전문가 지정조사 실시(2024. 2. 16.)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문화유산명 : 하동 쌍계사 장승(비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국립민속박물관
  - 소유자 : 국유(국립민속박물관)
  - 수량 : 2기(1쌍)
  - 재료 : 밤나무
  - 연대 : 1966년 이전
  - 규격 : [가람선신] 둘레 108cm, 높이 348cm  
[외호선신] 둘레 86cm, 높이 345cm

### 라. 의결사항

- 보류
  - 타 목장승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확인 후 재검토

마.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문화재위원 ○○○>

- 사찰장승·목장승, 특이한 형태 등으로 판단할 때 지역적, 시대적 변천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임. 다만 장승은 원래 이동하지 않는 문화유산인데, 하동 쌍계사에서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되어 문화재로서의 진정성, 완전성의 가치는 약화된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전문위원 ○○○>

- 쌍계사 장승은 목장승으로 그 희소성이 인정되지만, 그 이전 쌍계사에서의 역사적 이력이 불분명하다는 한계와 함께 ‘쌍계사’ 사찰장승의 장소적·기능적 맥락이 이탈된 현 상황에서 조형적 가치만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화재전문위원 ○○○>

- 하동 쌍계사 장승은 나무로 만든 장승으로는 보기 드물게 제작된 지 50여 년이 지난 것으로 역사성과 희소성을 갖고 있음. 뿌리 부분을 머리로 만든 형태로 예술성도 뛰어남.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장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보존상태 또한 양호함. 다만, 신앙 현장을 벗어나 보존되고 있어 신앙적 가치가 떨어지는 점은 아쉬움

<붙임>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1. 16.>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24. 02. 16. | 대상문화재 | 하동 쌍계사 장승 |  |
| 조사자 | 성 명           |       | 전공 분야     |  |
|     | 소 속           |       | 직위(직책)    |  |

|                          |                   |                                                                                                                                                                                           |
|--------------------------|-------------------|-------------------------------------------------------------------------------------------------------------------------------------------------------------------------------------------|
| 주요<br>지정<br>사항<br><br>검토 | 문화재 종류            | 동산(국가민속문화재 지정요청)                                                                                                                                                                          |
|                          | 문화재 명칭            | 하동 쌍계사 장승                                                                                                                                                                                 |
|                          | 입지 현황 및<br>역사문화환경 | 이 장승은 원래 경남 하동 쌍계사(雙磎寺)로 들어가는 입구 쌍계석문(雙磎石門) 좌우에 있었던 가람선신(伽藍善神) 외호선신(外護善神)의 명문이 있는 사찰장승이다. 밤나무를 뿌리째 뽑아 거꾸로 세워 장승의 머리 부분이 봉두난발형으로 매우 특이한 형태이다.                                              |
|                          | 연혁·유래 및<br>특징     | 쌍계사 장승에 관한 기록은 1910년 유리건판 사진과 1933년 《조선고적도보》 ‘쌍계사장생목표(雙磎寺長生木標)’ 사진이다. 최소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유사한 형태의 장승이 반복적으로 세워져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1966년 한국민속관을 개관할 때 이 장승을 구매하여 전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국립민속박물관 로비에 전시 중이다. |
|                          | 지정 가치 및<br>근거기준   | - 쌍계사 장승은 사찰 장승이고, 목장승이며,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br>- 목장승은 내구성의 한계가 있어서 보통 유사한 형태의 장승이 반복적으로 세워진다. 이 쌍계사 장승은 제작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전 시기가 1966년으로 정확하여 역사적 시대적 변천을 읽을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
| 검토                       | 지정 대상 및<br>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                          |                   | <보호물>                                                                                                                                                                                     |
|                          |                   | <보호구역>                                                                                                                                                                                    |

|                          |                          |                                     |
|--------------------------|--------------------------|-------------------------------------|
| 보호<br>관리<br>사항<br><br>검토 | 문화재 보존<br>영향 행위기준<br>(안) |                                     |
|                          | 보존정비 및<br>활용 착안사항        |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      |                                                                                                                                                    |
|------|----------------------------------------------------------------------------------------------------------------------------------------------------|
| 종합의견 | - 사찰장승, 목장승, 특이한 형태 등으로 판단할 때 지역적, 시대적 변천을 읽을 수 있는 주요한 문화유산이다. 다만 장승은 원래 이동하지 않는 문화유산인데, 하동 쌍계사에서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되어 문화재로서 진정성, 완전성의 가치는 약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18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하동 쌍계사 목장승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자 : ○○○ 문화재위원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 유 자 : 국립민속박물관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 1. 장승의 문화사적 이해

- 장승이란? : 나무나 돌로 다듬어 만든 사람 모양의 형상물(形象物)로 마을이나 절의 입구 또는 고개 등에 세웠던 일종의 수호신이다.
- 장승의 역사와 명칭 : 일찍이 손진태는 우리나라 장승의 기원을 부족국가 시대의 소도, 입석, 누석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역사적인 여러 기록을 보아 신라·고려·조선시대를 막론하고 장생, 장생표주, 장생표탑, 국장생, 황장생 등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각기 기능은 달랐겠지만 모두 장승이었음은 물론이다.  
장승의 명칭은 장생, 장성, 장성, 장신, 벽수, 벽슈, 벽시, 후, 수살, 수살막이, 수살목 등이 있다. 명칭으로 보아 장승이 일반적인 용어이며, 한자어로는 장생(長生, 長性)·장성(長性)·장신(長神)·장승(張丞) 등으로도 쓴다.
- 장승의 기능 :
  - ① 수호신의 역할 - 마을 앞의 장승은 마을, 절 앞의 장승은 절을 각각 지키기 위해 세운 것이다.
  - ② 이정표 구실 - 장승은 장승의 몸체에 어디까지는 몇 리라고 써서 이정표 구실을 하기도 했다. 이를 노표(路標)장승이라고도 한다.
  - ③ 풍수 비보적 역할 - 장승은 풍수적으로 보아 지세가 허한 곳에 세워 지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풍수에서는 비보적(裨補的) 역할이라고 하는데, 절이나 마을에서 고려하여 세웠다.
  - ④ 방위신 역할 - 장승은 마을의 네 방위에 세워 방위신 역할도 했으며, 성문 앞에 세워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도 했다.
- 장승의 재질, 명문, 형태
  - ① 재질 : 장승은 나무로 깎아 세우면 나무장승(목장승)이고, 돌로 깎아 세우면 돌장승(석장승)이다. 나무장승은 주로 소나무와 밤나무를 이용했고, 돌장승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화강암을 많이 썼다.

② 명문 :

-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 동방청제축귀대장군 서방백제축귀대장군 남방적제축제대장군 북방흑제축귀 대장군.
- 천하축귀대장군 지하축귀여장군.
- 동방천원축귀대장군 서방지하축귀여장군.
- 축귀장군남정중
- 토지대장군.
- 대장군 진살등(鎭殺嶺)
- 방생정계(放生定界) 호법선신(護法善神)
- 가람선신(伽藍善神) 외호선신(外護善神)
- 금호장군(禁護將軍) 호법대신(護法大神)
- 상원주장군 하원당장군
- 삼원대장군

③ 형태 :

- 장승은 얼굴, 몸통, 체근(體根, 땅에 묻히는 부분)으로 구성.
- 얼굴은 눈이 큰 통방울과 우뚝 솟은 코와 크게 벌려 이빨이 모두 드러나는 입으로 만들어져 있고, 목의 구분 없이 바로 몸통으로 연결되며, 팔과 다리의 표현이 없음.
- 장승 얼굴 모습이 해학적이어서 우락부락하면서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무섭게 보이면서도 다정다감하게 느껴져서 신기하고 재미가 있음.
- 장승은 남장승과 여장승으로 구분되고 장승은 대개 길 양편에 1기씩 세우거나 언덕에 나란히 남녀 한 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 동서남북 네 방향에 1기씩 세우는 곳도 있음.

○ 장승 관련 의례 :

장승과 관련한 제의와 의례는 ① 장승으로 세울 나무를 벨 때, ② 장승을 다듬어 세울 때, ③ 당산제와 함께 장승 등에 마을제사를 지낼 때 등 세 가지가 있다. 은산별신굿 경기도당굿(국가중요무형문화재), 공주탄천장승제(충남 무형문화재), 경기도광주엄미리장승제, 논산주곡리장승제, 청주선도산장승제, 청양정산동동화제, 당진안섬당제 등등 전국적으로 장승 관련 의례가 전승되고 있다.

목장승을 세우는 시기는 매년 새롭게 세우는 경우, 3년 5년 7년마다 세우는 경우, 기존 장승이 썩어져 놓여지면 세우는 경우 등 다양하다. 매년 새롭게 세우는 경우는 장승이 많게는 수십 기가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다. 한 지역의 목장승은 그 생김새도 서로 닮아 있다.

장승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자라난 방향과는 반대로 나무의 뿌리 쪽이 장승의 머리 부분이 되도록 한다. 이는 머리 부분이 몸통에 비하여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 외에 일상적인 모양을 뒤집음으로써 종교적 의미를 지닌 나무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기존 사찰장승

국가 또는 지역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된 사찰 장승은 여럿 있다.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남원 실상사 석장승, 나주 불회사 석장승, 나주 운흥사 석장승 등이다. 지역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울주 상천리 통도사 국장생석표(울산 유형문화재), **함양 벽송사 목장승(경남 민속문화재)**, 화천성불사지석장승(강원 민속문화재), 창녕 관룡사 석장승(경남 민속문화재), 쌍계사지장승(전남 민속문화재), 영암죽정리 국장승(도갑사, 전남 민속문화재), 함양 영은사지 석장승(경남 민속문화재), 충지사지석장승(전남 민속문화재), 법천사석장승(전남 민속문화재), 남장사 석장승(경북 민속문화재) 등이며 **예천 용문사 목장승**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서가 있다.

사찰장승은 대부분 석장승이고, 건립연대가 비교적 뚜렷하다. 남원 실상사 석장승은 실상사 입구에 있는 조선 후기에 건립된 2기의 장승이다. 1969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한 쌍의 돌장승이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 있는데, 두 장승 모두 높이 2.5m로 병거지를 쓴 모습이며 주먹코가 특징적이다. 윗송곳니가 아랫입술 위까지 길게 나와 있으며 수염은 한 가닥만 새겨져 있다. 몸체에는 각각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과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이라는 글자와 ‘옹정삼년을사삼월입(雍正三年乙巳三月立)’이라는 명문이 있어 조선 때인 1725년(영조 1)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또 사찰 입구에 있다는 점에서 도강의 안전과 사찰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겸한 것으로 보인다

나주 운흥사 석장승은 운흥사 입구에 세워진 남녀 한 쌍의 돌장승이다. 196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운흥사 석장승은 사찰에서 500m쯤 떨어진 밭 가운데 마주보고 서 있는데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의 모습이다. 남장승은 높이 270cm, 둘레가 192cm에 달하는 거대한 체구로 크고 둥근 눈에 뚱뚱한 코, 송곳니가 빠져나와 있지만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이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턱 밑에는 八字형 수염이 표시되었으며 몸체에는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의 명문이 있다. 여장승은 웃는 표정으로 소박한 모습이다. 깊은 선으로 둥근 눈이 표시되었고 입 언저리의 잔 수염과 주걱턱 표현이 인상적이다. 몸체에는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의 명문이 있다. 사찰 수호의 기능을 지닌 이 장승은 여장승 뒷면의 조선 숙종 45년(1719)이라는 기록으로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민속문화재이다.

나주 불회사 석장승은 1968년 12월 12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제작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17~18세기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찰 입구 300m 지점 길 좌우에 마주보고 서 있다. 사찰을 향해 오른쪽이 몸길이 315cm, 머리길이 80cm, 머리둘레 175cm, 가슴둘레 170cm, 얼굴너비 62cm의 남장승으로,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의 명문이 있다. 왼쪽은 몸길이 180cm, 머리길이 75cm, 머리둘레 162cm, 가슴둘레 162cm, 얼굴너비 47cm의 여장승으로, '주장군(周將軍)'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 석장승은 이웃한 운흥사 석장승의 조각 형태와 수법이 비슷하다. 이로 보아 운흥사 석장승이 만들어진 강희 58년(1719)을 전후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사찰 목장승의 대표적인 것이 함양 벽송사 목장승이다.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벽송사 목장승은 귀신을 몰아내고 경내의 금지된 규제와 풍수비보(風水裨補)를 지켜 주는 수문(守門)과 호법(護法)의 신장상(神將像)이다. 당초에는 사찰 입구 길가의 양쪽 좌, 우측에서 마주보고 서 있었으나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높아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벽송사 내에 집을 짓고 이

전시켜 보존하고 있다. 제작 시기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정확하지 않으나 구전에 의하면 약 70년 전에 세운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어, 문화재 지정 시기에 비추어 보면 제작 시기는 1900년대 경으로 추정된다. 금호장군(禁護將軍)은 1969년에 일어난 산불로 머리가 파손되었다. 1974년 12월 24일 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경상남도 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목장승이 확인된 당시에는 2기 모두 몸통이 절반가량 땅속에 묻혀 있어, 드러난 높이가 2m 내외이다. 왼쪽 장승은 머리 부분이 불에 타 없어졌고 왕방울 눈도 하나만 남아 있으며 코도 거의 알아볼 수 없다. 반면 입을 홀쭉하게 꼭 다물어 움푹 파인 뺨과 그 아래 짧은 수염의 형태는 남아 있다. 몸통도 부패하여 반쯤밖에 남아 있지 않다. 높이 180cm에 둘레 125cm로 금호장군[경내에 잡귀의 출입을 통제하는 장군]이라고 새긴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오른쪽 장승은 형체가 잘 남아 있고 둥근 눈과 주먹코를 하고 있으며, 입 모양이 함죽이다. 입 주위에는 불꽃 무늬 같은 수염이 표현되어 있고, 턱 밑에도 수염이 무성히 나 있다. 몸통은 중간까지 묻혀 있는데 높이 200cm에 둘레 130cm 정도이고 호법대신(護法大神)[불법을 지키는 신]이라고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예천 용문사 입구의 목장승은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1989년 조사보고서가 있어 사찰 목장승의 양상을 추론해 볼 수 있다(경북지방 장승·솟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1990). 목장승은 3기가 있다. 재질은 장승은 나무 중에서 팽죽피 오래간다는 괴목이다. 예전에는 ‘동구마을’에서 일주문에 이르는 길 양 옆에 10여 군데가 있었다. 현 주지스님인 용허(龍虛) 스님이 12년(1989년 기준) 전에 왔을 때 6~7군데에서 일부는 서있고 일부는 넘어져 있었다. 그 후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하나는 성남국제학교(교장 Adcm smith)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절 누각 밑에 갖다 놓았다. 장승 중 큰 것은 얼굴의 형태가 비바람에 썩어서 중간이 없어졌다. 그런데 몸 전체의 명문은 “(옴)三元大將軍 (남) 己酉〇〇 〇月 〇日” 이라고 음각이 되어있다. 작은 장승은 얼굴의 외형은 어느 정도 알아 볼 수 있으나 몸체의 명문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썩어있다. 주먹코에 왕방울눈, 두식, 입을 양각했고 턱부분을 크게 하여 얼굴과 몸체를 구분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이 장승에 관련된 제의는 없으나,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정월 보름에 스님이 술과 제물을 마련하여 제사를 모셨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전에 장승이 동구마을에서 일주문 사이에 서 있을 때는 신자들이 절에 오면서 합장배례를 했었다고 한다.

### 3. 하동 쌍계사 목장승의 특징

“하동 쌍계사 장승은 경남 하동 쌍계사(雙溪寺)로 들어가는 입구 쌍계석문(雙溪石門) 좌우에 있던 한 쌍의 장승이다. 입구 왼쪽에 있었던 장승은 가람선신(伽藍善神)으로 남장승이고, 입구 오른쪽에 있었던 장승은 외호선신(外護善神)으로 여장승이다. 밤나무를 뿌리째 뽑아 거꾸로 세워 장승의 머리 부분이 봉두난발형으로 매우 특이한 형태이다. 1966년 한국민속관을 개관할 때 전시하고자, 쌍계사에 새로운 장승을 세워 주고, 본 장승을 구매하여 전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국립민속박물관 로비에 전시 중이다.” 이상은 지정신청보고서의 내용이다. 이 지정신청 보고서에서 사찰목장승, 봉두난발형 특이한 형태, 쌍계사에서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다.

○ **하동 쌍계사 사찰 목장승** : 하동 쌍계사 장승은 사찰 장승이고 목장승이다. 사찰장승은 이미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여러 건이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며, 그 중 목장승은 함양 벽송사 목장승과 예천 용문사 목장승과 비교할 수 있다. 사찰 석장승의 경우 건립 시기가 분명하고 비교적 오래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목장승의 경우 함양 벽송사 목장승과 경남이라는 지역적 근접성, 1900년도를 전후한 건립시기, 명문, 생김새 등에서 하동 쌍계사 장승과 여러 모로 유사하다.

○ **가람선신(伽藍善神) 외호선신(外護善神) 명문** : 사찰장승의 명문으로는 가람선신(伽藍善神) 외호선신(外護善神)과 비슷한 금호장군(禁護將軍), 호법대신(護法大神) 방생정계(放生定界) 호법선신(護法善神) 등이 있다. 함양 벽송사 목장승의 금호장군(禁護將軍)[경내에 잡귀의 출입을 통제하는 장군] 호법대신(護法大軍 (神)[불법을 지키는 신] 과 유사하다. 사찰의 수호기능을 엿볼 수 있다. 예천 용문사 목장승은 삼원대장군(三元大將軍), 실상사 운흥사 불회사 석장승에는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 상주 남장사 석장승에는 ‘하원주장군(下元周將軍)’ 등의 명문이 있다.

쌍계사 장승은 석문마을 주민에게 절 입구 표시 정도로 인식되었고, 신앙 대상으로서 의례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쌍계사 장승은 서 있었던 위치에 서 알 수 있듯이 쌍계사의 입구 표시이고, 쌍계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밤나무를 거꾸로 세운 특이한 형태** : 나무는 내구성에 취약하다. 장승은 나무 중에서 굉장히 오래간다는 참나무, 괴목, 밤나무 등을 사용한다. 밤나무는 특히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 간다는 대단히 단단한 나무이다. 밤나무는 한자로 ‘栗’로 ‘西’와 ‘木’이 결합되어 서쪽의 나무라는 뜻도 있다. 밤나무는 내구성이나 종교적 상징으로 위패나 신과 관련된 물품을 만들 때 사용한다. 밤나무로 만드는 장승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보통 장승을 세울 때에는 자라난 방향과는 반대로 나무의 뿌리 쪽이 장승의 머리 부분이 되도록 한다. 이는 머리 부분이 몸통에 비하여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 외에 일상적인 모양을 뒤집음으로써 종교적 의미를 지닌 나무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68년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서 수습되어 전남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목장승(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의 모습은 마치 부스스한 사람의 머리 모양처럼 나무뿌리 부분이 장승의 머리로 사용되었다. 나무를 거꾸로 나무뿌리 채로 세운 형태가 비슷하다.

목장승은 썩기 쉬운 내구성에 한계가 있다. 한 지역의 목장승은 보통 유사한 형태의 장승이 반복적으로 세워진다. 하나의 지역적 특성이자 유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동 쌍계사 목장승의 밤나무를 거꾸로 뿌리 채 세운 봉두남발형이다. 이것은 하동 쌍계사 목장승의 한 유형(類型)이다. 현재 지정 신청한 장승은 하동 쌍계사 목장승이 한 지역에서 계속 세워지면 형성된 한 유형의 사례(事例)라고 할 수 있다.

○ **쌍계사에서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 : 쌍계사 입구에 있던 장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쌍계사 장승에 관한 기록은 1910년 유리건판 사진과 1933년에 발간한 《조선고적도보》 13권 ‘쌍계사장생목표(雙溪寺長生木標)’ 사진이다. 두 사진은 같은 사진으로 《조선고적도보》 편찬을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 대상 쌍계사 장승은 1930년대 이후부터 국립민속박물관의 옮겨진 1966년 이전 만들어 세웠을 것이나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보통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 사람을 보고 “장승처럼 서 있다” 라고 한다. 장승은 움직이지 않고 한 지역 또는 장소에 서있는 문화유산이다. **장승은 지역의 역사성, 장소성, 의례성, 조형성 등으로 그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쌍계사에서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 건은 장승의 역사성, 장소성, 의례성 등 본래적 의미나 기능이 상실되고 그 외형적 특성인 조형성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 4. 종합적 의견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쌍계사 장승은 본래 경남 하동군 쌍계사에 전승되어 오던 사찰장승이다. 밤나무를 거꾸로 세우고 뿌리를 살려 산발한 머리, 통방울형 눈에 주먹코, 드러난 송곳니 등 매우 역동적으로 표현된 특이한 조형미와 미학적 가치가 높은 장승이다. 가람선신(伽藍善神), 외호선신(外護善神)이란 명문도 사찰 장승의 특유의 내용이다.

문화유산의 지정은 당해 문화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와 문화유산의 진정성 및 완전성 구비되어 있고, 다른 유사 문화유산과의 차별적인 특징 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장승은 지역의 역사성, 장소성, 의례성, 조형성 등으로 그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한 쌍계사 장승이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장이 아닌 쌍계사 현지에 위치하였다면 그 문화적 의미와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승처럼 원래의 자리에 서있지 않고 현장을 떠난 장승은 역사성, 장소성, 의례성 등을 잃어버리고 조형성만 남게 되어 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낮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국립민속박물관, 2024, 「문화재지정신청서」,  
2024 「쌍계사 장승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관련조사」  
2021, 「쌍계사 장승[석남-513] 관련 내용 검토보고」  
1990, 『경북지방 장승·숫대신앙』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 : 장승(박호원, 배도식), 장승제(박호원, 류종목), 장승타령(이기형, 장승재판(강성숙), 음성마송리 석장승(안상경), 공주탄천장승제(박호원, 안상경), 부안죽림리석장승(서종원), 영광도동리석장승(유병덕), 장흥방촌리석장승(김희태), 대덕법동리석

장승(임승범), 광주엄미리장승제(이용범), 청주선도산장승제(안상경), 사  
천가산리석장승(유승훈), 청주선도산장승제(안상경) \* 표제어(집필자)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종목별검색, 검색어 ‘장승’ <https://www.heritage.go.kr>

천진기, 1996, 「장승·숫대의 역사」 『韓國民俗史論叢』, 지식산업사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조사일 | 2024.2.16 | 대상문화재 | 쌍계사 장승[석남-513] |  |
| 조사자 | 성 명       |       | 전공 분야          |  |
|     | 소 속       |       | 직위(직책)         |  |

|                      |                   |                      |
|----------------------|-------------------|----------------------|
| 주요<br>지정<br>사항<br>검토 |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
|                      | 문화재 명칭            | 쌍계사 장승               |
|                      | 입지 현황 및<br>역사문화환경 | 해당없음                 |
|                      | 연혁·유래 및<br>특징     | ※ 세부 내용 [붙임]에 기재     |
|                      | 지정 가치 및<br>근거기준   | ※ 세부 내용 [붙임]에 기재     |
|                      | 지정 대상 및<br>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해당없음 |
|                      |                   | <보호물> 해당없음           |
|                      |                   | <보호구역> 해당없음          |

|                      |                      |      |
|----------------------|----------------------|------|
| 보호<br>관리<br>사항<br>검토 | 문화재 보존<br>영향 행위기준(안) | 해당없음 |
|                      | 보존정비 및<br>활용 착안사항    |      |

종합의견

- 경상남도 하동군 쌍계사에 전해 오던 사찰장승 2점은 지난 1966년 한국민속관(현 국립민속박물관) 당시 평가위원 석주선, 장주근이 입수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이들 장승의 출처는 알 수 있음.
- 쌍계사 장승 2점에는 각각 명문이 몸통에 새겨져 있었는데, ‘伽藍善神’과 ‘外護善神’이었음. 이것으로 보아 장승의 기능은 1차적으로 법계와 속계를 구분하면서 가람을 수호하고 외부의 불선한 것으로부터 사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녔던 것으로 보임.
- 쌍계사 장승의 특징은 나무뿌리(밤나무로 추정)를 머리로 삼아 눈과 코, 송곳니 등이 사실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예술성이 높은바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함.
- 쌍계사 장승은 목장승으로 그 희소성이 인정되지만, 그 이전 쌍계사에서 역사의 이력이 불분명하다는 한계와 함께 ‘쌍계사’ 사찰장승의 장소적·기능적 맥락이 이탈된 현 상황에서 조형적 가치만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쌍계사 장승으로 시민사회에 관람 기회를 주고, 교육 및 보존의 가치를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 이 장승의 의미를 재맥락화 하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그것이 왜 쌍계사 장승이어야 하는지 그것이 왜 지금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등에서 현재 다른 많은 민속자료로서의 목장승과 대비할 때 형평성의 문제를 낳는다고 판단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3 월 15 일

제출자

문화재청장 귀하

## 연혁 · 유래 및 특징

- 지정현황 : 미지정
- 명 칭 : (쌍계사) 장승
- 소 유 자 : 국유
- 소 재 지 : [03045]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 수 량 : 2점
- 입수연유: 구입품(1966년 평가위원 석주선 장주근 신수)
- 시대/연대 : 한국/광복이후
- 현 상 : 이전 유물
- 내용 및 특징
  - 경상남도 하동군 쌍계사에 전해 오던 사찰장승 2점은 지난 1966년 한국민속관(현 국립민속박물관) 평가위원 장주근이 구입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장승의 출처는 알 수 있음.



<그림 1> 쌍계사 장승(국립민속박물관 본관)\_  
외호선신(좌) 가람선신(우)

- 쌍계사 장승 2점에는 각각 명문이 몸통에 새겨져 있었는데, ‘가람선신(伽藍善神)’과 ‘외호선신(外護善神)’이었음. 이것으로 보아 장승의 기능은 1차적으로 법계와 속계를 구분하면서 가람을 수호하고 외부의 불선한 것으로부터 사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녔던 것으로 보임.



<그림 2> 쌍계사 장승\_  
外護善神



<그림 2> 쌍계사 장승\_  
伽藍善神

• 장승의 형상은 아래와 같음

- 사모를 쓰거나 족두리에 비녀를 꽂은 일반적인 형상이 아니라 밤나무를 뿌리째 뽑아 뿌리 부분을 다듬어 장승의 머리로 삼아 흡사 봉두난발의 쑥대머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뿔처럼도 보인다.
- 가람선신의 얼굴 이마 부분은 가로 주름이 되어 있고, 눈썹은 덩굴무늬로 그려 예술성을 가미하였다. 눈은 통방울눈으로 가람선신은 둥글게 튀어나왔지만, 외호선신은 평면으로 되어 있어 남녀의 차이를 보인다.  
외호선신의 미간에는 역삼각형을 그려 주름을 표시하였고, 코는 둘 다 주먹코이다.  
가람선신의 미간 약간 아래에는 미간백호(眉間白毫)를 새겼고, 그 아래로 가는 가로 주름을 새기고, 코끝이 뭉쳐 있다. 반면 외호선신의 콧등에는 짙은 가로 주름 2개를 눈가 부분에 새겼다.
- 인중은 둘 다 긴 편이다. 가람선신의 위쪽 송곳니가 아래로 향하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 부분에 구름문 혹은 꽃문양의 장식을 하였다. 외호선신은 아래 송곳니가 위로 향하게 되어 함죽이 형태이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 부분에는 역시 구름 혹은 꽃무늬를 새기고, 아랫입술 아래에는 꽃반침 형의 무늬를 넣었다.
- 가람선신은 수염을 길게 내렸는데, 왼쪽으로 휘어졌으며, 먹칠하여 검게 표현 하였다. 외호선신은 수염이 없다. 외호선신에 비해 가람선신의 얼굴이 큰 편이다.

- 쌍계사 장승의 재질은 밤나무로 만든 목장승이며, 나무의 수명과 수고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음.

- 쌍계사 입구의 장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음. 쌍계사 장승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910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유리건판 사진. 다른 하나는 1933년에 발간한 《조선고적도보》 13권 1,805쪽 도판 번호 5571번 ‘쌍계사장생목표(雙溪寺長生木標)’ 사진 있음.



장승  
雙溪寺長生木標  
(慶山 陝川郡伽藍圖)  
(慶山 河東郡花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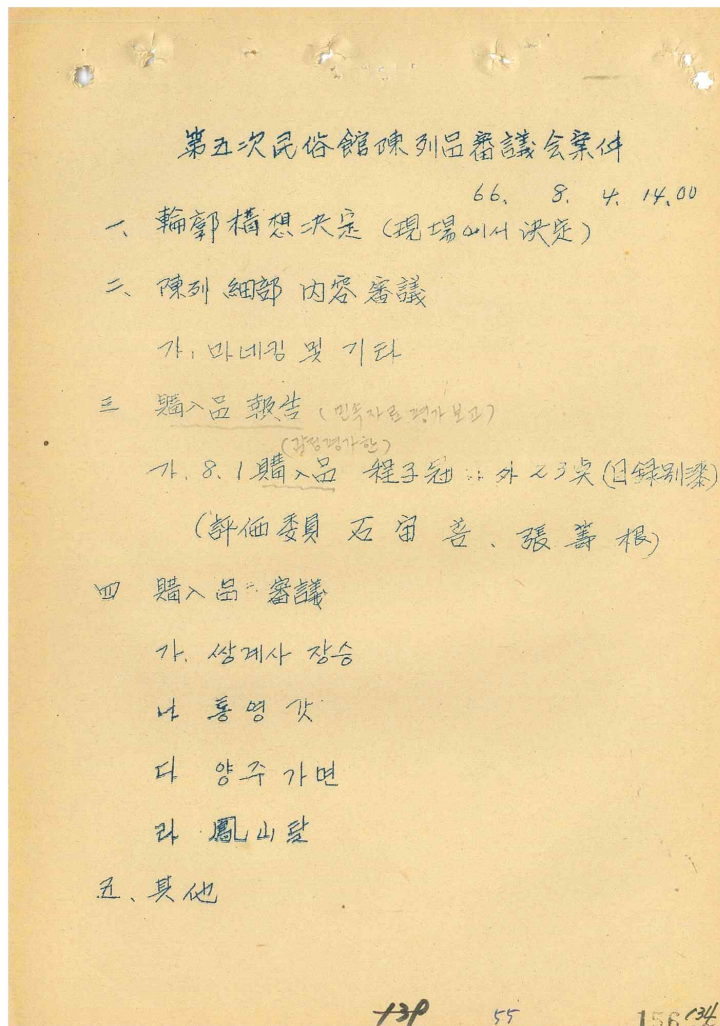
장승

- 그러나 위의 쌍계사 장승은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승과 차이가 보이는 바이나 나무로 장승이 줄곧 세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쌍계사 장승의 특징은 나무뿌리(밤나무로 추정)를 머리로 삼아 눈과 코, 송곳니 등이 사실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예술성이 높으나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함.

- 한국민속관 개관(1966.10.4.) 즈음 당시 문화재관리국 소속으로 있던 평가위원 석주선, 장주근이 쌍계사 장승 유물 2점을 구입하였음.



- 쌍계사 장승은 목장승으로 그 희소성이 인정되지만, 그 이전 쌍계사에서 역사의 이력이 불분명하다는 한계와 함께 ‘쌍계사’ 사찰장승의 장소적·기능적 맥락이 이탈된 현 상황에서 조형적 가치만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보임. 이 사실은 이것이 쌍계사 장승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립민속문화재로 지정됨에 있어서 역사성에 문제를 갖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목장승을 왜 밤나무로 만들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현격히 떨어짐.

- 쌍계사 장승으로 시민사회에 관람 기회를 주고, 교육 및 보존의 가치를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 이 장승의 의미를 재맥락화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그것이 왜 쌍계사 장승이어야 하는지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다른 장승들은 왜 안 되는지 나아가 그만한 연대를 갖는 다른 민속자료의 장승이나 지정도 되지 않은 수많은 한국의 목장승 등이 지정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의 난제를 피하기 어려움.

- 위와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난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술성만으로 그 가치를 매겨 국가민속문화재로 인정받으려는 유물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                          |                                                                                                                                                                                                    |       |           |  |
|----------------|--------------------------|----------------------------------------------------------------------------------------------------------------------------------------------------------------------------------------------------|-------|-----------|--|
| 조사일            |                          | 2024.02.16.                                                                                                                                                                                        | 대상문화재 | 하동 쌍계사 장승 |  |
| 조사자            | 성 명                      |                                                                                                                                                                                                    |       | 전공 분야     |  |
|                | 소 속                      |                                                                                                                                                                                                    |       | 직위(직책)    |  |
| 주요<br>지정<br>사항 | 문화재 종류                   | 국가민속문화재                                                                                                                                                                                            |       |           |  |
|                | 문화재 명칭                   | 하동 쌍계사 장승                                                                                                                                                                                          |       |           |  |
|                | 입지 현황 및<br>역사문화환경        | • 하동 쌍계사 장승은 경남 하동 쌍계사(雙溪寺) 입구에 있던 한 쌍의 장승으로, 1966년 한국민속관을 개관할 때 전시하고자 구매하여 현재는 국립민속박물관 로비에 전시 중이다.                                                                                                |       |           |  |
|                | 연혁·유래 및<br>특징            | • 하동 쌍계사 장승은 쌍계사(雙溪寺)로 들어가는 입구 쌍계석문(雙溪石門) 좌우에 있던 한 쌍의 장승이다. 입구 왼쪽에 있었던 장승은 가람선신(伽藍善神)으로 남장승이고, 입구 오른쪽에 있었던 장승은 외호선신(外護善神)으로 여장승이다. 밤나무를 뿌리째 뽑아 거꾸로 세워 장승의 머리 부분이 봉두난발형으로 매우 특이한 형태이다.              |       |           |  |
|                | 지정 가치 및<br>근거기준          | • 나무로 만든 장승으로는 보기 드물게 만들어진 지 50여 년 이상 된 것으로, 제작 시기, 제작 장소, 장승의 기능, 구입 경위 등이 확실하다.<br>• 밤나무를 거꾸로 세워 뿌리 부분을 머리로 한 형태로 예술성이 뛰어나며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장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       |           |  |
|                | 지정 대상 및<br>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br><보호물><br><보호구역>                                                                                                                                                                 |       |           |  |
| 보호<br>관리<br>사항 | 문화재 보존<br>영향 행위기준<br>(안) |                                                                                                                                                                                                    |       |           |  |
|                | 보존정비 및<br>활용 착안사항        |                                                                                                                                                                                                    |       |           |  |
| 검토             |                          |                                                                                                                                                                                                    |       |           |  |
| 종합의견           |                          | • 하동 쌍계사 장승은 나무로 만든 장승으로는 보기 드물게 제작된 지 50여 년이 지난 것으로 역사성과 희소성을 갖고 있다. 뿌리 부분을 머리로 만든 형태로 예술성도 뛰어나다.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장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다. 다만, 신앙 현장을 벗어나 보존되고 있어 신앙적 가치가 떨어지는 점은 아쉽다. <세부 내용 별첨> |       |           |  |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제출자

【별첨 자료】

하동 쌍계사 장승 지정 조사 보고

조사자 : ○○○(문화재전문위원)

- 신청종별 : 국가민속문화재
- 소 유 자 : 국립민속박물관

○ 역사적 가치 및 희소성

- 하동 쌍계사 장승은 목장승으로는 보기 드물게 제작된 지 50여 년이 지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신앙의 대상으로 세워진 목장승은 야외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나무를 잘라 만드는 데다 민가를 통해 전해 내려와 오늘날까지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하동 쌍계사 장승은 한국민속관을 개관할 때 전시하고자 1966년 9월 6일 쌍계사 윤기원에서 사들인 것으로 그 제작 연도가 최소 50년 이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정된 장승 관련 국가민속문화재는 모두 돌로 만든 것이다. (【표 1】 참조)

【표 1】 국가민속문화재 장승 지정 현황(문화재청자료)

| 연번 | 명칭         | 소재지         | 시대명    | 지정일        | 수량 |
|----|------------|-------------|--------|------------|----|
| 1  | 통영 문화동 벽수  | 경상남도 통영시    | 대한제국시대 | 1968-11-25 | 1기 |
| 2  | 나주 불회사 석장승 | 전라남도 나주시    | 조선시대   | 1968-12-12 | 2기 |
| 3  | 나주 운흥사 석장승 | 전라남도 나주시    | 조선시대   | 1968-12-12 | 2기 |
| 4  | 고창 오거리 당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조선시대   | 1969-12-17 | 3기 |
| 5  | 남원 실상사 석장승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조선시대   | 1969-12-17 | 3기 |
| 6  | 부안 서문안 당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조선시대   | 1970-05-20 | 4기 |
| 7  | 부안 동문안 당산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조선시대   | 1970-05-20 | 3기 |
| 8  | 남원 서천리 당산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조선시대   | 1970-05-20 | 2기 |
| 9  | 순창 충신리 석장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조선시대   | 1979-01-26 | 1기 |
| 10 | 순창 남계리 석장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조선시대   | 1979-01-26 | 1기 |
| 11 | 여수 연등동 벽수  | 전라남도 여수시    | 조선시대   | 1990-10-10 | 2기 |
| 12 | 장흥 방촌리 석장승 | 전라남도 장흥군    | 조선시대   | 2013-06-14 | 2기 |

- 이 외 시도민속문화재도 대부분 돌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함양 벽송사 목장승(경상남도 민속문화재)’과 ‘목장승(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2기가 시도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 함양 벽송사 목장승(경상남도 민속문화재)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벽송사 입구
- 지정일 : 1974.12.24
- 벽송사로 들어가는 길가의 양쪽에 마주 보고 서 있는 한 쌍의 목장승이다. 잡귀의 출입을 금하는 기능과 함께 불법을 지키는 신장상(神將像)으로서의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2기 모두 몸통이 절반가량 땅속에 묻혀 있어, 드러난 높이가 2m 내외이고, 그나마 한쪽 장승은 윗부분이 불에 타 파손이 심하다. 대체로 잘 남아있는 오른쪽 장승은 대머리에 크고 둥근 눈이 돌출되었다. 코 주위에 깊은 선을 둘러 뭉툰 코가 더 두드러져 보이며, 짝 다문 입 주위와 턱 아래에는 톱니 모양의 수염을 묘사해 놓았다. 몸통에는 ‘호법대신(護法大神:불법을 지키는 신)’이라는 이름을 새겨 놓았다. 머리의 일부가 불에 타버린 왼쪽 장승은 눈 한쪽과 코의 가운데 부분이 파손되었다. 남아있는 눈은 크고 둥글며, 입은 다물고 있으며, 그 아래에 짧은 수염을 표현하였다. 몸통에는 ‘금호장군(禁護將軍:경내에 잡귀의 출입을 통제하는 장군)’이라는 글귀를 새겨 놓았다. 구전에 의하면 약 70년 전에 세운 것이라고 하는데, 목장승으로서는 시대가 오래되어 보기 드문 모습이다. 비록 눈·코·입이 과장되게 표현되긴 하였으나 순박한 인상을 주고, 무서운 듯하면서도 친근함을 느끼게 하여 질박한 조각 수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림 1】 함양 벽송사 목장승

■ 목장승(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용봉동, 전남대학교)
- 지정일 : 2017.01.01
- 1968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이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서 수습하여 원위치가

명확함. 재료적 한계 때문에 전래되기 어려운 목장승으로 드문 사례이고 조형성이 우수하여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으므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그림 2】 목장승(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 하동 쌍계사 장승은 목장승으로는 보기 드물게 제작된 지 50여 년이 지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장승이다. 이는 장승 소장 경위에서도 명확히 입증된다. 아울러 원 위치가 명확히 증명된다.
- 지역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목장승들도 제작된 지 50여 년 이상 된 것이다. 함양 벽송사 목장승이나 광주광역시 목장승은 전체적인 모습은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하동 쌍계사 장승은 ① 제작된 지 최소 50여 년 이상 되었으며, ② 본래 있었던 곳이 확실하며, ③ 온전한 본래의 모습을 갖춘 목장승이 드물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 ○ 학술적 가치 및 예술성

- 하동 쌍계사 장승은 쌍계사(雙溪寺)로 들어가는 입구 쌍계석문(雙溪石門) 좌우에 있던 한 쌍이다. 입구 왼쪽에 있었던 장승은 가람선신(伽藍善神)으로 남장승이고, 입구 오른쪽에 있었던 장승은 외호선신(外護善神)으로 여장승이다. 가람선신은 사찰 입구를 지키는 신이고, 외호선신은 불법(佛法)을 지키는 신이다. 하동 쌍계사 장승은 쌍계사 입구 표시임과 동시에 쌍계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하동 쌍계사 장승은 밤나무를 뿌리째 뽑아 거꾸로 세워 장승의 머리 부분이 봉두난발(蓬頭亂髮)형이다. 가람선신의 얼굴 이마 부분은 가로 주름이 되어 있고, 눈썹은 덩굴무늬로 그려 예술성을 가미하였다. 눈은 통방울눈으로 가람선신은 둥글게 튀어나왔지만, 외호선신은 평면으로 되어 있어 남녀의 차이를 보인다. 외호선신의 미간에는 역삼각형을 그려 주름을 표시하였고, 코는 둘 다 주먹코이다. 가람선신의 미간 약간 아래에는 미간백호(眉間白毫)를 새겼고, 그 아래로 가는 가로 주름을 새기고, 코끝이 뭉쳐 있다. 반면 외호선신의 콧등에는 짙은 가로 주름 2개를 눈가 부분에 새겼다. 인종은 둘 다 긴 편이다. 가람선신의 위쪽 송곳니가 아래로 향하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 부분에 구름문 혹은 꽃문양의 장식을 하였다. 외호선신은 아래 송곳니가 위로 향하게 되어 합죽이 형태이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 부분에는 역시 구름 혹은 꽃무늬를 새기고, 아랫입술 아래에는 꽃받침 형의 무늬를 넣었다. 가람선신은 수염을 길게 내렸는데, 왼쪽으로 휘어졌으며, 먹칠하여 검게 표현하였다. 외호선신은 수염이 없다. 외호선신에 비해 가람선신의 얼굴이 큰 편이다. 왼쪽 입구의 장승은 몸통 아랫부분에 가람선신(伽藍善神)이라 새겼고, 오른쪽 입구의 장승은 몸통 아랫부분에 외호선신(外護善神)이라 새겼다.
- 하동 쌍계사 장승과 비슷한 형상을 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목장승’이 있다. 이 목장승은 마치 부스스한 사람의 머리 모양처럼 나무뿌리 부분을 장승의 머리로 사용하고 있다. 장승의 얼굴에서는 크고 동그란 눈과 커다란 코, 날카로운 송곳니가 돋보인다. 수습할 당시부터 땅에 묻혀 있던 부분이 부식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장승의 길이가 많이 짧아져 긴 수염이 땅에 닿았다. 부식된 부분은 시멘트로 복원하였다. 나무라는 재료의 특성 때문에 보존되기 어려움에도 외관이 우수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하동 쌍계사 장승은 ① 사찰 입구를 표시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② 사모와 족두리, 비녀로 된 여타 장승과는 밤나무를 거꾸로 세워 뿌리 부분을 머리로 한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술적 가치와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 ○ 기타 문제

- 하동 쌍계사 장승은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경계표와 신앙적 기능을 상실하였다. 반면에 밤나무로 만들어 목질이 단단하고, 향온향습이 이루어지는 실내에 보관되어 훼손의 가능성이 적어 본래 모습을 거의 간직하면서 보존될 수 있었다.

- 하동 쌍계사 장승은 명칭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명칭을 보면 하동 쌍계사에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립민속박물관(서울시 종로구)에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점은 <국가민속문화재 산청 전주최씨 고령댁 상여(山淸 全州崔氏 高靈宅 喪輿)>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산청 전주최씨 고령댁 상여는 경남 진주에서 사용했던 상여로 철종 7년(1856)에 제작된 것으로 제작 연대가 분명하고, 각부의 조각과 조립 형태가 정교하여 상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을 인정받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상여 또한 ① 시신 운반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였고, ② 보관 장소 또한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점에서 하동 쌍계사 장승이 갖는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함에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점은(지정일 : 1996.02.13.) 하동 쌍계사 장승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에 참고할만한 사례라 여겨진다.

# 보 고 사 항

## 10. 현상변경 등 자체처리 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국가민속문화유산 주변 행위허가 허가신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 나. 처리내용

| 문 화 유 산 명 | 소 재 지<br>(신 청 인) | 사 업 내 용                                                                                                                                                                                                                                                                                                                                                                                                                                                                                                                                                                                                                                                                                                              | 처 리 결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3건                                                                                                                                                                                                                                                                                                                                                                                                                                                                                                                                                                                                                                                                                                                   | 허가 3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함안 무기연당   | 경남<br>함안군        | <div>□ 함안 무기연당 주변 공장 증축</div> <div>○ 신청위치: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920-11 외 2필지</div> <div>○ 이격거리: 지정구역에서 240m (3구역)</div> <div>○ 사업내용: 공장 증축</div> <div>- 부지면적: 4,161.0㎡</div> <div>- 최고높이: 11.6m → 15.5m</div> <table><tr><th>동별</th><th>층</th><th>구조</th><th>기존</th><th>증축</th><th>합계</th></tr><tr><td>주1동</td><td>1층</td><td>철골</td><td>400.00</td><td></td><td rowspan="2">1,216</td></tr><tr><td>주2동</td><td>1층</td><td>철골</td><td></td><td>816.00</td></tr><tr><td>부1동</td><td>1층</td><td>콘크리트</td><td>156.75</td><td></td><td rowspan="2">322.5</td></tr><tr><td></td><td>2층</td><td>경량철골</td><td></td><td>165.75</td></tr><tr><td></td><td></td><td></td><td>556.75</td><td>981.75</td><td>1,538.5</td></tr></table> | 동별                                                                                        | 층      | 구조      | 기존 | 증축 | 합계 | 주1동 | 1층 | 철골 | 400.00 |  | 1,216 | 주2동 | 1층 | 철골 |  | 816.00 | 부1동 | 1층 | 콘크리트 | 156.75 |  | 322.5 |  | 2층 | 경량철골 |  | 165.75 |  |  |  | 556.75 | 981.75 | 1,538.5 | <div>○ 허가</div> <div>-신청지 주변에 이미 공장 건축물이 다수 있으며, 연접한 필지에 더 높은 건물이 존재함</div> <div>-문화유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div> |
| 동별        | 층                | 구조                                                                                                                                                                                                                                                                                                                                                                                                                                                                                                                                                                                                                                                                                                                   | 기존                                                                                        | 증축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동       | 1층               | 철골                                                                                                                                                                                                                                                                                                                                                                                                                                                                                                                                                                                                                                                                                                                   | 400.00                                                                                    |        | 1,2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2동       | 1층               | 철골                                                                                                                                                                                                                                                                                                                                                                                                                                                                                                                                                                                                                                                                                                                   |                                                                                           | 81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1동       | 1층               | 콘크리트                                                                                                                                                                                                                                                                                                                                                                                                                                                                                                                                                                                                                                                                                                                 | 156.75                                                                                    |        | 32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층               | 경량철골                                                                                                                                                                                                                                                                                                                                                                                                                                                                                                                                                                                                                                                                                                                 |                                                                                           | 165.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6.75                                                                                    | 981.75 | 1,538.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주 계은고택   | 전남<br>나주시        | <div>□ 나주 계은고택 주변 가설건축물 설치</div> <div>○ 신청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107</div> <div>○ 이격거리: 지정구역에서 240m (1구역)</div> <div>○ 사업내용: 농사용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div> <div>- 설치규모 : 18.0㎡ (6m×3m×2.6m)</div>                                                                                                                                                                                                                                                                                                                                                                                                                                                                                                                             | <div>○ 허가</div> <div>-문화유산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건으로 문화유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함양 허삼들 고택 | 경남<br>함양군        | <div>□ 함양 허삼들 고택 주변 보도교 설치</div> <div>○ 신청위치: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254-1</div> <div>○ 이격거리: 지정구역에서 80m (4구역)</div> <div>○ 사업내용 : 보도교 설치</div> <div>- 보도교 상부공 : L=90m, B=2.3m</div> <div>- 보도교 하부공 : 교대 2개소, 교각 2개소</div>                                                                                                                                                                                                                                                                                                                                                                                                                                                                                                   | <div>○ 허가</div> <div>-기 허가기간 종료 ('21.12.15~'23.12.31.)에 따른 재신청 사항임</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